

루터의 두 왕국론(Zweireichelehre), 그리고 현실주의적 윤리

- 목 차 -

들어가는 말

몸 말

- I. 마르틴 루터, 그는 누구인가
 - 1. 루터의 발자취
 - 2. 사상적 배경
 - 3. 루터 당시의 교회상황
 - 4. 루터의 교회관과 국가관
- II. 루터의 두 왕국론
 - 1. 루터의 윤리사상의 전제
 - 2. 묵시문학과 어거스틴의 영향
 - 3. 두 왕국론 이해
 - 4. 두 왕국설로 본 농민운동(루터의 정치윤리)
- III. 루터와 기독교 현실주의적 윤리
- VI. 내 이름은 루터, 내 얘기 들어볼래?

나가는 말(결론)

들어가는 말

지난주는 종교개혁 주일이었다. 종교개혁 주일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용기 있었던 한 사람이 떠오른다. 그 이름하여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가톨릭교회에 반하여 바위에 계란을 던져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인물이었다. 그가 그런 개혁을 이루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그는 탈세속적이거나 그렇다고 지나친 세속화를 추구하지 않고 지극히 현실적인 견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의 생애와 그가 영향을 받았던 사상과 더불어 그의 정치 사상을 3대 논문과 농민전쟁을 통해 살펴 본 후, 특히 두 왕국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두 왕국설은 마르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 인식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민전쟁에서 나타난 루터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볼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루터에게 나타나는 현실주의적 윤리가 무엇인지 리처드 니버의 이론을 통해서 알아보고 루터의 두 왕국설의 현실성을 다시 점검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두 왕국론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

몸 말

I. 마르틴 루터, 그는 누구인가?

1. 루터의 발자취

1.1 출생과 학업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다. 그는 교육열이 넘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만스펠트, 마그데부르크에서, 아이제나하 등지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1501년부터 1505년까지 에어푸르트 대학을 다녔다.

루터의 집안에서는 루터가 법률가로 출세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루터가 법률

공부를 시작하였던 어느 날 교외로 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꺾고 벼락이 내리쳤다. 그는 땅에 넘어지면서 “성 만나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하고 맹세하였다. 루터는 이렇게 맹세를 한 후 자기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름 후에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갔다.

수도사 생활에서 루터는 곧 인정을 받았다 1507년에 신부로 안수를 받았고, 1512년부터는 그의 본거지가 될 비텐베르크에서 교수직을 하였다. 1515년에 그는 수도원의 연구원장이 되었고 11개의 수도원을 관할하는 책임을 맡은 교구의 사제로도 임명 받았었다. 그러나 그는 온갖 수도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혼의 평화를 찾지 못했다.

그가 시편을 강의할 무렵(1513-1515)에 구원은 인간 편의 어떤 공로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기반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이므로 구원 받은 자도 아직도 죄인이면서도 자유스럽게, 그리고 온전히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롭고 즐거운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삶이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이러한 올바른 관계의 바탕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였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돌려주셨다. 루터는 이러한 관계회복을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타올러 등 독일 신비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2.3 참조)

1.2 면죄부와 하이델베르크 논쟁

루터가 이상과 같이 이신득의라는 진리를 깨달았을 즈음에 독일에서는 이른바 면죄부 사건이 생겼다. 당시 테첼¹⁾은 면죄부 판매를 하면서 면죄부는 교황이 특별히 은총을 내린 것으로 현세적 벌뿐만 아니라 내세적 벌과 죄까지도 면해 준다고 설교하였다. 그래서 연옥에서 형벌 받는 친지를 위해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 친지가 하늘로 간다고 외쳤다. 루터는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놀랐다. 만일 면죄부가 죄를 사해준다면 회개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이다. 루터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룬 95개 조문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루터가 면죄부 사건을

넘어 기존의 교회에 변화를 요구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 말하였다.

루터의 95개 조문의 파문이 확산되어 가자 교황청에서는 우선 어거스틴 수도회가 자체적으로 루터를 수습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1518년 하이델베르크에서 어거스틴 수도회 수도사들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총회에서 루터는 하이델베르크 논제에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 사상을 피력하였다. 루터는 중세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규정하고 인간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지성으로 자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영광의 신학은 참된 신학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고통당하는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명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는 이런 자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였다.

하이델베르크 논쟁으로도 루터가 잠잠하지 않자 그 다음에는 도미니크 수도회의 에크가 논쟁을 걸어왔다.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에크는 루터의 주장이 후스의 주장과 같다고 주장하고 마침내 루터에게서 후스를 정죄한 콘스탄스 총회가 잘못했다는 대답을 끌어내었다. 그리고 루터는 여기서 교황의 지상권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루터는 중세 교회가 권위의 근거로 믿어 온 교황의 권위와 총회의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결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3 루터의 정치사상의 핵심 - 종교개혁 3대 논문

1520년 루터는 그의 개혁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세 권의 저서, 『독일 민족의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교회의 바벨론 유수』, 『그리스도인의 자유』 세 단편을 발표하였다. 『독일 민족의 그리스도인 귀족에게』란 책에서 루터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교직자와 평신도가 분리될 수 없으며 교직자들은 성례를 통하여 평신도와 속권을 통치하며 위협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므로 제후들은 비록 속권의 소유자이나 교회의 운명이 부패로서 이러한 위기에 처할 때 고대 교회의 전례에 의하여 교회 총회를 소집하여 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1) Johann Tetzel, 1470-1519 [도미니카의 수도사]

『교회의 바벨론 유수』란 책에서 루터는 성례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해 주는 통로인 성례에 대한 로마가톨릭의 7성례를 비판하고 세례와 성만찬만이 성서의 성례라고 주장하였다. 루터는 로마가톨릭의 성찬론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비판하였다. 첫째는 평신도들에게 빵만 주고 포도주는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었다. 둘째는 화체설이었다. 그리고 셋째는 성찬을 희생제사로 본 것이다. 루터에게 성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인데 희생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희생미사라는 것은 루터에게는 용어 모순으로 보였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책에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군왕으로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절대적 자유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에게 속한 가장 충실한 종으로 누구에게나 예속한다.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이제는 법률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은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인 것은 사랑으로 얽매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웃에 봉사하는 책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1.4 보름스 국회, 비텐베르크에서의 활동

루터의 개혁 운동이 확산되어 가자 교황은 1520년 6월에 루터에게 정죄 교서를 발표하였다. 루터는 시민 및 학생들과 함께 이 교서를 불태움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1521년 보름스에 제국 의회가 개최되었을 때 루터는 이 의회에 소환되게 되었다. 황제가 루터의 저서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자 루터는 성서의 증거에 의해서나 분명한 이성으로 인해 설복시키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만약 독일이 이때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통치되고 있었다면 루터는 얼마 못 가서 순교자로서 일생을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황제의 명령이라도 강한 영주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다시 한 번 구원할 수 있었다. 공개되는 것을 아마 꺼려했는지, 프리드리히는 보름스로부터 귀로에 있는 개혁자를 은밀하게 사로잡아 비밀리에 아이제나하 근처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데려왔다. 수개월 동안 루터의 은신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살아서 그의 저서를 통하여 개혁사상을 급속히

전파했다. 로마 교황청에 대한 그의 공격은 더욱 날카로워 졌으나 무엇보다 이 강제적인 은거 생활에서 거두게 된 가장 보람있는 큰 수확은 1521년 12월에 시작하여 그 다음해 9월에 출판한 그의 신약성서 번역이었다.

루터는 1522년 바르트부르크에 은신해 있으면서 비텐베르크의 소요사건을 듣고 갈등을 표출했다. 그는 종교개혁 운동이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러나 루터는 황제의 수배령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루터는 죽음을 각오하고 비텐베르크로 떠나게 된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에 있는 동안 비텐베르크에는 급진적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 소동이 일어났다. 이에 루터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온건한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523년에는 『세속권위 : 어느 정도로 복종해야 하는가』 저술하였다. 1521년 보름스 국회 후에 황제의 칙령에 따라 일부 제후들에 의해 루터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루터는 이런 상황에서 세속 제후들이 영적인 문제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 책자를 썼다. 루터는 여기서 두 왕국론과 두 정부론을 주장하면서 영적 정부와 세속적 정부의 구별을 주장했다. 루터는 여기서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참된 신뢰와 진지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둘째, 그의 신민들을 향해서는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있어야 한다. 셋째, 그의 보좌관과 관리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이성과 자유로운 판단을 지녀야 한다. 넷째, 고행자들에 대해서는 절도 있는 엄정함과 확고함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1.5 농민전쟁

1524-1525년에는 농민 전쟁이 일어나 소요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독일 농민은 오랫동안 불안과 곤궁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1524년 5-6월 독일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폭동은 그 다음해 4월에 이르러서는 가공할 만큼 굉장했다.

1525년 3월에 농민들은 12개 조항의 선언을 제출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농노 폐지, 어렵의 자유, 삼림 개방, 고역 경감, 소작권 확보, 토지의 공평 사용,

공민권 등이었다.

루터는 처음에는 제후와 농민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으나 제후들이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농민들은 더욱 폭력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에 대해 루터는 농민들을 강경 진압 할 것을 주장하였다. 농민운동은 복음을 가장한 폭동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가 쓴 저서로는 1525년에 『평화로의 권고 : 스와비아 농민들의 12조문에 대한 응답』, 『약탈하고 살인하는 농민떼에 대항하여』, 『농민들에 대한 심한 책에 관한 공개서한』을 저술하였다. 이 저서들에서 그는 급진적 개혁가들의 주장에 대해, 영적 정부와 세속적 정부는 구별되어야 하며 종교적 명목으로 세속적 정부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1.6 나머지 생애

1526년에는 『군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저술하였다. 군인도 하나님이 세운 제도인 세속정부에 속하므로 군인의 직임도 경건한 것이며 군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1529년에는 『터키인에 대한 전쟁에 관하여』를 저술하였다. 이 전쟁은 십자군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황제가 주관하는 전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30년에는 『시편 82편 주석』을 저술하였다.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국회를 앞두고 쓴 것으로 세속 정부의 올바른 관리를 주장하며 잘못을 경계했다. 1531년에는 『친애하는 독일 백성에 대한 마르틴 루터 박사의 경고』를 저술하였다. 여기서 루터는 황제가 교황의 뜻에 따라 진리에 탄압을 시작한다면 루터파 제후들이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그의 고향 아이슬레벤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임종을 지켜보던 요나스는 “목사님,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당신이 전한 교리들 안에 확고하게 서서 운명하시겠습니까?”하고 물었다. 루터는 분명한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하고 세상을 떠났다.

- 이양호, 루터의 생애와 사상, 대한기독교서회(2002)

- 윌리스턴 워커 저, 민경배 외3명 역, 세계 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1998)

참고하여 구성..

2. 사상적 배경

2.1 어거스틴

루터는 어거스틴의 저술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였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 루터는 로마가 고트족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반달족의 북아프리카 정복 등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생존을 위한 신학적인 과정들을 설명한 어거스틴에게 크게 감명을 받았다. 특히 두 도성에 관한 가르침들,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와 세속적인 지상의 도시는 루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2 스콜라 신학 (윌리엄 오캄, 가브리엘 비엘)

루터는 스콜라 신학과 그 대표자들에 관해서 열심히 연구하였다. 당시 에르푸르트 학풍은 유명론(Nominalism)이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은 실재론과 유명론²⁾의 대립으로 특징지어진다. 루터가 에르푸르트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윌리엄 오캄과 가브리엘 비엘이었다. 이들은 모두 중세 후기 스콜라 신학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유명론자였다. 이들은 은총의 상태에서도 인간의 자유가 확보되기를 원했다.

오캄과 비엘은 이성, 양심과 같은 하나님의 자연적인 선물은 타락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연의 상태에서 행한 선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당한 보상을 주신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연의 상태에서 도덕적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정당한 대가로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모토는 “네 자신이 최선을 다하라”(facere quod in se est)였다. 이는 적어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즉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실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 자신의 구원에 어떤 공헌을 전제한 것이었고 이것은 정확히 루터의 종교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

이러한 유명론자들의 가르침은 “새 방법”(via moderna)으로 알려져 있다. 루터는 나중에 오캄을 자신의 스승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이러한 유명론의 가르침

2) 실재론 : 참으로 실재하는 것은 개체가 아니라 보편

유명론 : 참으로 실재하는 것은 보편이 아니라 개체(명목론이라고도 한다)

에 충실하였다. 루터가 1517년 면죄부 판매를 공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 공격이 있기 전에 루터는 이미 그의 글들에서 중세 후기 스콜라 신학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캄 이외에도 루터는 피에르 다일리(Pierre D'Ailly)와 같은 후기 스콜라주의 자에게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연구를 계속하는 동안 루터는 그가 늘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었다 :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했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보상받을 만큼 선행을 충분히 했는지에 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에르푸르트에서의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는 루터로 하여금 심각한 실존적 고민으로 몰아갔다.

- 김주한, “마틴루터의 생애 연구” (말씀과 교회 27호, 2001) 참고, 요약

2.3 신비주의

루터는 신비주의자들의 신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특별히 요하네스 타울러(Johannes Tauler, 1300-1361)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타울러는 1361년 사망 할 때까지 라인강가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승이며 신부였다.

당시 루터는 신비주의적인 합일과 금욕주의적인 생활에 매료되었다. 타울러의 사상은 그의 설교집에 잘 드러나 있다. 타울러는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위해서는 인간 자신의 어떤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의를 얻는 길은 자기 포기과 자기 멸절을 통해서 참된 복종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신의 모든 욕망, 의지, 세상의 모든 사물들과 자신에게서부터도 분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소멸 될 때에 하나님과의 결합이 현재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타울러의 가르침은 루터에게 크나큰 관심을 끌었다.

루터가 그의 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세 신비주의가 실제로 어떤 중요성을 지니면서 영향을 주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루터는 중세의 신비주의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특별히 1516-18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신학을 형성하던 중요한 시기에 루터는 독일의 신비 전통에 최고의 찬사를 표했

다. 그의 친구 조지 스팔라틴(George Spalatin)에게 보낸 편지에서 루터는 요하네스 타울러(Johannes Tauler)의 설교들은 “순수하고 확고부동한 신학”으로 그리고 복음서들과 밀접한 합의들을 보여 주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가 1518년 95개 테제들에 관해서 변호를 할 때 스콜라 신학보다는 타울러에게서 훨씬 훌륭한 신학을 발견했노라고 고백하였다. 루터가 중세 수도원주의나 고행을 통한 선행-의인화 신학을 공격할 때 그의 공격의 자원은 독일의 신비전통이었다.

3. 루터 당시의 교회상황

16세기문턱에 접어들 무렵 기독교 최고 목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저버린 교황알렉산더6세(1492-1503), 율리우스2세(1503-1513), 그리고 레오10세(1513-1521)는 르네상스교황으로 불리운다. 교황은 교회를 영적으로 갱신하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예술가와 인문주의자들의 보호자를 자칭하고 르네상스 부흥에 힘을 기울임으로 교회의 세속화를 가속화시켰다.

교황청부터 타락하고 무능 모습을 보여주었던 16세기 전환기에는 사제의 혼외관계는 너무 만연되어 있어서 사제의 자녀라는 것이 기분나쁜 사실이 될 수 없었다. 또한사제는 기부금으로 제단에서 일하는 사제를 임명했고, 종종 신학수업을 받지않은 채 사제가 되어 죽은 기부자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침묵미사를 드리고, 의식을 거행했다.

또 사제무산자 라는 직업이 생겨났는데 사제로서 성직록을 받는 사람이 적은 돈을 주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대행케 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났다. 이렇듯 16세기의 교회는 목회적인 직업에 대한 의식이 점점 더 약해졌고, 교황청의 세금수납은 분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했다.

16세기 교회에 강하게 나타난 참회의 성례전의 필요성은 중세교회 교리적 특징이다. 모든 신자는 지옥의 형벌과는 구분되는 연옥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영혼의 사후 얼마나 연옥의 형벌을 견디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위해 미사, 기도, 금식, 그리고 적선의 행위를 함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이 연옥의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당시 교회가

주장했던 것이 면죄부이다.

면죄부 설교자인 테첼은 면죄부는 로마교회가 하는 것이기에 신성한 것으로 여겼고 교황의 무오류성은 곧 면죄부에도 적용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판매된 면죄부대금의 절반은 교황청으로 가져감으로 지역의 경제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칼-하인츠 츠어뮐렌, 정병식·홍지훈역,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참고, 요약

4. 루터의 사상 - 교회관과 국가관

4.1 교회관 - 말씀과 성도 교제의 교회

루터는 참된 기독교는 교회 제도, 교회법 그리고 중세 신학이 완전히 성서 안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대체된다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루터에게는 오직 성서만이 유일한 계시의 전달자이다.³⁾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최고의 권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가 아무것도 허락하거나,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 들은 알게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름만이 교회일 것이니 교회가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⁴⁾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 외에 어떠한 무조건적인 권위도 없다. 또한 교회의 특징으로 결정적인 것은 성례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 설교된 말씀과 기록된 성서말씀은 성령의 조명과 감화 아래 우리 마음속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통해 루터는 교회 위에 성경의 권위를 두었고, 최종적 권위는 교회도 성경도 아닌 복음, 성육하신 하나

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지 속에 잠재한다는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의 시대의 교회와의 투쟁으로 일어났고, 그는 교회의 경험적인 실재성에 대항 했을 뿐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교회 개념에도 대항했다. 그는 무교회주의와 개인주의적 경건의 이름으로 이 싸움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명백한 교회에 대한 개념의 이름으로 행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는 것에 교회가 있다는 점을 수 없이 반복하여 증거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그리스도교 교회”라고 이해된다. 루터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혹은 모임” 또는 “거룩한 그리스도교 세계” 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교 백성”이란 표현을 가장 즐겨 말한다.

루터는 교회를 성도들의 교제 혹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보았다. 이것은 오직 땅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 공동체를 의미하였다. 루터의 교회론을 이야기 할 때, 결코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만인제사장사상이다. 루터가 살던 시대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더욱 심화되어 심지어 성직자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더 고급적이고 구원의 계획도 다르며 성직자로만 교회가 구성된다고 까지 말하였다. 루터는 이같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 관념을 뒤엎고,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게 되었다.

J.M.Poter, 홍치모 역, 루터의 정치사상, 콘콜디아사(1985) 참고, 재구성.

4.2 루터의 국가관

루터의 국가 개념은 질서 개념에서 나왔다. 아담의 타락 후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전의 자연 상태의 질서생활을 국가 또는 정부라는 형태의 질서체제를 통하여 구현시키는 대책을 세운 것이다.⁵⁾

루터는 통치자들은 그의 백성들이 그들만의 소유인 것처럼 다루서는 안될 것을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며 통치자는 그의 백성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3) J.M.Poter, 홍치모 역, 루터의 정치사상, 콘콜디아사(1985) P. 9-10.

4) Martin Luther, the Missuse of the Mass, Luther's Works, vol36, Philadelphia fortress press(1959) P. 145-46. 이하 LW로 표기

5) 이장식, 기독교와 국가, 대한 기독교 출판사(1981), P. 142.

한다. 백성들 또한 그의 통치자들을 대할 때에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⁶⁾

국가(정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야만적인 이기심과 폭력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특별한 과업을 위임받았다. 국가는 이를 위해 법을 만들고 이러한 법을 어기는 범죄자들을 벌하는 것으로 사용한다.⁷⁾ 루터는 아무도 정부 없이 평화는 약속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정부를 떠받치는 힘에는 법과 권리 뿐 아니라 신적 권위도 있습니다. 정부를 불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정부가 없다면 세상에서 자행되는 중죄가 처벌받지 않은 채 방치 될 것입니다. **-탁상담화 435P⁸⁾**

한편 그는 이러한 정부의 권위와 복종의 한계를 생각하였는데, 세속 정부는 땅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그 권위의 한계는 이 땅의 문제들로 명확하게 한계 지어져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모든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만약 정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악마의 일을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군주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정부를 향해서 반란을 꾀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루터는 보았다.

위정자는 세상에 꼭 필요한 지위로서, 백성은 그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만큼 위정자는 쉽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존경을 받으면 태도가 바뀌되, 더 나아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법 없이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는 제후는 야수보다 못한 괴물입니다. 그러나 법과 정의대로 다스리는 제후는 법과 정의를 수립하시는 분인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 탁상담화 434P**

루터는 하나님이 정부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는 전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루터는 전쟁을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평

화를 파괴하는 자를 벌하는 정부의 권위의 연장으로 파악하였다.

루터의 국가관은 크리스찬에 대한 정부를 향한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이 정부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은 더 뚜렷해지고, 그 세상의 세속 정부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에 그들은 그 안에서 더욱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루터는 크리스찬과 구별된 국가를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닌 크리스찬이 이 세속 정부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국가관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II. 루터의 두 왕국론

사실 두 왕국론은 루터가 조직신학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정황에서 필요에 따라 기록된 글들의 종합이다. 탁상에서 머리만 굴리며 나온 결과가 아닌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루터의 현실적인 삶에서 직접 우려나왔던 그의 사상과 원리,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상들이 스며들었다. 루터의 두 왕국론은 가히 "엑기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왕국론에서는 좁게는 삶 속에서 기독교인의 올바른 생활 지침을 권면하는 것부터, 크게는 그의 정치적 윤리와 교회관이 반영되어 되어 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그의 삶에서 나타난 그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그 엑기스를 음미하며 그의 현실적인 모습을 살펴 볼 것이다.

1. 루터의 윤리사상의 전제

1.1 율법과 복음에 대한 루터의 이해

루터는 율법의 의미를 두 가지 용법으로 이해하였다. 첫째로는 법의 시민적 용법 혹은 정치적 용법이고, 둘째로는 법의 신학적 혹은 복음적 용법이다.⁹⁾ 전

6) LW, 45, 85-86; LW, 13, 48; LW, 2, 139-142

7) LW, 46, 180, 188.

8) 마르틴 루터 지음, 이길상 옮김, 탁상담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2005)

9) 박충구, 기독교 윤리사I, 대한기독교서회(2008), P.212

자의 용법에 따르면 율법은 세상 질서를 유지시키고 존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법을 통해 세상을 보존하신다고 믿었다. 여기에서 복음은 죄에 맞서 세상을 보존하는 보존적 의미를 가진다. 루터는 율법이 의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는 도덕과 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수대와 칼로 위협하는 사형집행관이 두렵기 때문이다. 사형집행관이 버티고 있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탁상담화 202P**

율법의 다른 기능은 인간의 죄 된 현실을 알게 하고 죄인 됨을 자각하게 하여, 복음의 필연성을 인식하게 하여 복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복음은 구원론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 영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죄악의 현실을 깨달은 인간에게 슬퍼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비추어 회복과 위로와 쉼을 베풀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정죄 받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이 선포하는 것은 은혜와 사죄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1.2 은총에 의한 죄인의 의인 됨(Justification of the sinner)

따라서 루터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행위란 기독교인이 됨의 근본 조건인 은총에 의하여 의로워진 존재가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한다. 중세기의 윤리 사상이 덕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르게 루터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였다.

루터는 기독교인의 모든 윤리적 행위는 믿음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보았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였다. 루터의 윤리 사상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힘입은 이들이 자신을 위한 존재에서 변화를 받아 이웃을 위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루터의 윤리 사상의 출발점이며, 궁극적인 의미이다.¹⁰⁾

10) 같은 책, p209

1.3 루터의 인간 이해

루터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은 율법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지만,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세계는 복음화된 기독교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필연적으로 비기독교적인 사람들과 관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루터는 ‘인간은 의로운 존재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한다 루터에게 인간의 행위는 그 자체가 거룩하거나 값있는 것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행해진 행위만이 선한 것이다.

루터는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현실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범주(Coram deo)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 타자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범주(Coram mondo, hominibus)¹¹⁾이다.

루터는 이러한 세상에서의 삶의 현실을 매개하는 범주는 이성의 역할에 의존하는 범주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가 인간의 죄성과 악의 현실에 대한 숙고가 함께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편적인 이성적 작업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¹²⁾ 루터에게 ‘인간은 의로운 존재인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명제는 복음과 율법의 긴장 구조,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지니는 긴장,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로서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타락한 피조물로서의 양극적 한계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¹³⁾

2. 어거스틴의 영향

루터의 두 왕국론은 어거스틴의 영향아래 발전되었다. 어거스틴이 루터에게 두 왕국론의 모델을 제공해 주었지만 루터는 어거스틴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를 보여준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을 말하고 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두 도성의 기원은 천상에서는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야기된 천사의 분열

11) 박충구, 기독교 윤리사, 대한기독교서회(2008) P. 211에서 재인용.

12) 같은 책, p211

13) 같은 책, p211

에서 시작되고 지상에서는 가인과 아벨에서 시작된다. 가인과 함께 시작된 지상의 도성은 사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으로 예정되었고, 아벨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릴 것으로 예정되었다. 두 도성 가운데 지상의 도성은 amor sui(자애)로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amor Dei에 의해 형성되었다. 전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영광을 사람에게 취하지만 후자는 주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최대의 영광으로 삼는 특징을 보인다.

어거스틴은 세상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대조에 중점이 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두 나라는 질서가 나란히 서 가는데 그것은 최후의 심판 날까지 가다가 세상나라는 영원한 불에 탈 것이다.¹⁴⁾

어거스틴의 두 도성설은 이원론적인 역사이해로서 현실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루터는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어거스틴의 두 도성설에 영향을 받아 그의 두 왕국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두 도성 이론이 루터의 두 왕국론에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어거스틴은 하나님과 악의 대립에서 두 도성을 이해하나 루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중적 지배형태에 관심을 가진다.** 루터에 있어 두 정부는 구별되면서 동시에 전체를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어거스틴에게 지상의 도성이 최악의 도성으로서 절망으로 이르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나라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루터에 있어 두 영역은 모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속정부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지만 어거스틴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

루터는 어거스틴의 두 도성설을 넘어가는 경험적인 단계로 그는 두 정부 사이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개념에 의해 두 왕국론을 확장시켰던 것이다.

3. 두 왕국론 이해

루터는 개혁운동 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신앙과 사회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고 그것에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그는 두 왕국 이론에서 세계를 그리스도의 정부와 세속정부로 나누고 세속정부의 성서적 근거와 업무, 범위 등을 제시함으로써 양자 간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두 정부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역할을 밝힌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와의 관계성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현실주의 윤리문제와 연결된다.

3.1 두 왕국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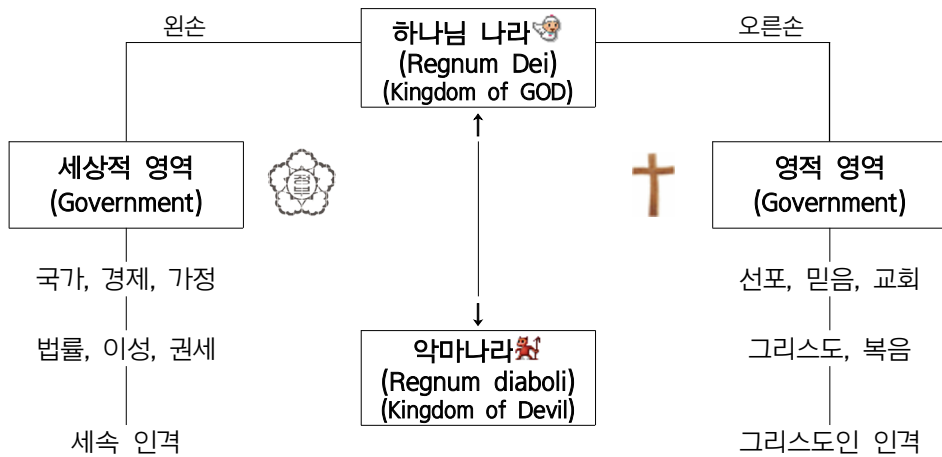
두 왕국이란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왕국과 세상왕국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regnum Christi와 regnum mundi로 표시된다. 루터에게 있어서, regnum이란 ‘지배(realm)’ 또는 ‘왕국(kingdom)’이란 뜻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용어로서 우주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그러므로, regnum 개념은 하늘과 인간 세계역사의 전 지평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¹⁵⁾

일반적으로 교회역사를 볼 때 두 왕국교리는 Protestant 세계의 정치이념으로 사용됨으로써 두 영역을 말하는 종교적 이론이 되었다. 그 두 영역은 바로 교회와 국가라는 영역이다. regnum이란 개념이 정치적 관점과 국가라는 제한된 영역으로 축소되어 이해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는 교회와 국가의 엄격한 분리현상으로 유도되었으며 서로가 전혀 상관되지 않은 것으로 굳어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루터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되어버렸다고 위르겐 몰트만은 지적한다.¹⁶⁾ 따라서 몰트만은 아래와 같은 도식을 사용하여 루터의 복잡한 두 왕국개념을 설명했다.

14)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I, 대한기독교서회 (1978), p281

15) 정상운, M.루터의 두 왕국론, 성결대학교 논문 제 24집(1995) P. 345에서 재인용

16) J. Moltman, 조성호 역, 정치신학 정치윤리, 대한기독교서회(1992), P.393



우리 조 또한 위르겐 몰트만의 의견에 깊이 동의하는 바이다. 비록 루터가 후기에 어거스틴의 존재론적인 구별보다는 세상의 영역과 영적 영역 아래에 있는 기독교인의 삶의 이차원성이라는 관점에서 두 왕국을 설명했지만, 하나님과 악의 우주적 대립에 대한 어거스틴적 사항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어거스틴 수도회의 신부였던 루터는 이 세상에 공존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늘 자각하고 고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속에 우리 주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당연히 주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큰 죄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 탁상담화 179P

마귀는 우리의 원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여 그의 나라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임금과 신이며, 세상의 모든 군주와 제후들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느끼듯이, 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복을 가하며 공격합니다.
- 탁상담화 362P

우리가 만약 두 왕국론을 하나님과 악의 대립사항을 배제하고 단순히 세속적

영역, 영적 영역의 범주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이해한다면, 결국 악에 대항한다는 두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라지게 된다는 오류에 부딪힌다. 두 정부는 상호 능동적인 관계없이 평행선상에서, 세속정부에는 복수와 강압의 법칙이 지배하며, 반대로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적정부에만 관계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속된 말로 서로 영향을 줘야 할 '건덕지'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속정부는 궁극적인 구원의 길인 복음에 대한 복종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기법칙성 가운데 빠진다.

따라서 영적 정부는 세속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횡포를 휘두르는 정치적인 세력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후대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의 반인륜적인 모습에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대항하지 못하고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던 독일 교회들도 이런 오류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루터의 두 왕국론을 이해할 때 (1)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우주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2)악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두 영역인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의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고찰에 따라 우리 조는 위의 도표에 나온 용어를 앞으로의 논지 전개에 사용할 것이다.

3.2 영적정부 & 세속정부

이처럼 루터는 한편에 있는 두 나라들(kingdoms)과 다른 한편에 있는 두 정부들(governments) 사이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두 나라들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속해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다른 사람들(불신자들이) 속해있는 이 세상의 나라가 있다. 이후에 루터는 하나님께서 두 정부들, 즉 영적인 정부와 세속정부를 제정하셨다는 구별의 원칙은 계속 유지하지 않고 나라(kingdom)와 정부(government)의 개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그는 영적나라와 세속나라, 영적정부와 세속정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와 그리스도의 정부를 번갈아 구분 없이 사용했다.¹⁷⁾ (이로 인해서 후에 루터를 배우는 사람들은 헛갈림과 혼란 속에서 절규한다. 우리 조원들도 공부하면서 뇌가 4등 분 되는 것이 무슨 느낌인지 어렵듯이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여 이끌어 간다고 할 때 그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지 않고 정해진 도구와 인간을 통하여 그의 뜻을 실현해 나간다. 루터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영역, 즉 그리스도인의 왕국과 악마의 왕국을 먼저 설정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과정 속에서 그의 나라를 확장해가기 위한 목적을 위해 두 기관을 세웠다고 루터는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과 접촉하고 인간을 그의 도구와 협력자로 사용하여 그의 뜻을 역사 가운데 펼쳐나간다. 이런 일은 인간이 맡은 세상의 직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루터는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의 개념을 이끌어 냈다. 이 두 정부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라는 상황 속에서 다같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인간을 이끌어 나가는 제도적 장치로서 활용된다.

3.2.1 영적정부(영적 영역)

영적영역은 하나님이 그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 지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분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는 이 나라의 왕이고 주인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로 구성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상 가운데 존재한다. 그런데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은 숨겨진 나라이고 말씀과 신앙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영적정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 통치된다.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하여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이르게 하여 삶에서 선을 실현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루터는 죽음 이 편인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만 하나님 나라의 약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단계적 이중성을

보게 된다. 즉, 지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그 나라에 비해 미약하고, 준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¹⁸⁾

3.2.2 세속정부(세상적 영역)

루터에게 있어 사회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가정, 정치, 직업 등은 타락의 결과라기 보다는 일종의 창조의 질서(Order of Creation)였다.¹⁹⁾ 따라서 위와 같은 사회의 질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형태인 국가, 즉 세속정부는 세상의 영역에서 악의 세력을 막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뿐 아니라 세상 왕국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세속 정부라는 합법적 기관을 제정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펼쳐간다고 볼 수 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세속 정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왕국을 다스리는 동일한 하나님이 세속 왕국도 세웠으며 세속 정부 역시 하나님의 뜻과 질서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칼과 외적인 법률로 지배와 다스림을 받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

루터에게 있어서 세속 권위의 인정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서의 인정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 자체의 번영을 위해 보존할 뿐 아니라, 악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봉건적 세계관 안에서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높은 신분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루터의 정치 권력자에 대한 이해는 비기독교인적인 정치인이나 관헌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치가 혹은 관헌을 뜻함이 더욱 적절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18) 같은 책 P. 351

19) 박충구 저, 기독교윤리사, 대한기독교서회(2008), P.214

17) 정상운, M.루터의 두 왕국론, 성결대학교 논문 제 24집(1995) P. 349

3.2.3 영적정부 & 세상정부의 관계

루터에게 있어서 세속정치는 단지 정치당국과 정부 그 자체만을 뜻하는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 세속정치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즉 결혼, 가족, 가정, 재산, 사업 등 삶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²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 왕국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속 왕국에서도 똑같이 선과 사랑과 자비로 통치하신다.

영적정부 (말씀)	세속정부 (검)
자발적, 용서, 영, 신앙, 복음, 말씀, 신앙	강제, 복종, 일, 벌, 권세, 행위, 율법 질서, 평화, 법

두 왕국이 독립된 상태로 구별되며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한 곳에 속한다.

세속정부와 영적 정부는 상호 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세속 정부가 없다면, 사람들은 영적 정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현실세계의 무질서에 사로잡혀 헤매다가 소멸되고 말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할 세속정부는 겉으로만 억지로 질서를 유지하며 사랑하느 체하는 위선만 있을 뿐 궁극적인 질서와 정의는 없을 것이다.

3.3 두 왕국설로 본 농민운동 (루터의 정치윤리)

1524년 토마스 뮌처를 중심으로 시작된 독일 농민봉기는 사회변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농민 봉기 초기 단계에서 농민들은 마르틴 루터를 그들의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고 그의 지도력을 갈망했다. 만인 제사장설과 같은 루터의 가르침은 그들의 자의식을 일깨웠고 자신들의 권리에 눈뜨게 했기 때문이었

20) 정상훈, M.루터의 두 왕국론, 성결대학교 논문 제 24집(1995) P. 352

다. 오랜 시간 동안 불만이 쌓여온 독일농민들에게 마르틴 루터의 가르침은 자신들에게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운동에 결과적으로 루터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농민들을 향해서 반대하는 소리를 내었다. 루터는 그들에게 손에서 무기를 머리고 영주에게 순종하며, 하루빨리 농토로 돌아가도록 요구했다. 심지어 그는 독일의 제후와 귀족들을 향해 "반란에 가담한 미친 개 같은 농민들을 처 죽이고 찢러죽이시오" 라는 엄청난 독설을 뱉기도 했다.

루터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농민들의 실망 또한 컸다. 농민들은 그들을 지지해주지 않는 루터에게 강하게 반발했다. 루터가 설득하기 위해 농민들을 만났을 때 그는 큰 수모를 당했고, 일부 농민들은 적대감까지 나타냈다.

그러면 루터가 농민봉기에 대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루터는 영주들이 백성들에게 폭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용인한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두 왕국론을 중심으로 루터의 입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루터의 두 왕국론은 다스리는 자들을 세상 정부에서의 하나님의 대표자들로 강조한다. 엄밀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검을 위임받은 사역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는 백성들은 마땅히 세속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에 대해서

불복종하거나, 특별히 저항하는 것은 그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수여하신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둘째, 루터는 하나님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영원히 전쟁 가운데 있다고 확신했는데, 이러한 신념에 기초해서 그는 반란은 악마의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란은 사탄이 하나님의 두 정부를 파괴하려는 악마의 도구인 것이다. 영적 왕국에서 사탄은 인간을 말씀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이단을 득세하게 만들고 신성 모독을 하도록 유도하듯이, 세속왕국에서도 사탄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통치자들에 대항하여 반란을 꾀하도록 사람들을 자극한다.

셋째, 세속정부와 영적 정부의 관계적인 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은 세속정부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루터는 농민들이 복음이라는 영적 정부에 속한 기반을 가지고 그들의 폭력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농민들의 주장과 요구가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이란 이름을 바탕으로 폭력적인 모습을 가진다면 이는 두 정부의 영역이 서로 섞여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결코 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두 정부의 영역이 서로 섞여버리는 것은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무정부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²¹⁾ 이러한 무정부 상태는 홉스가 표현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The war of all against all)상태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반란으로 인한 무정부 상태는 엄청난 혼란과 함께 많은 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루터가 농민봉기에 대해 반대한 이유는 개혁이란 이름의 농민봉기가 무규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농민 봉기가 격해질수록 그것을 염려한 루터의 반응도 거세어질 수 밖에 없었다.

무규범 상황을 초래할 봉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검의 형태인 세속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루터는 세속정부가 반란을 막고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도 쓸 수 있다고 보았다.

루터의 글 「평화를 위한 권면」의 첫 부분은 군주들과 영주들에게 보낸 글로서 거기에서 루터는 이러한 농민들의 봉기를 심각하게 생각할 것과 농민들과의 화해를 시도할 것, 농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들을 경감시킬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개혁할 것을 권하고 있다.²²⁾

루터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야기시킨 일차적 책임은 영주들에게 있다는 것을 비교적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권면」의 두 번째 부분은 농

민들에게 보낸 글로서 루터는 농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12개 항목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농민들이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복음이 그와 같은 행동을 정당화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중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기독교의 법은 폭력과 폭동이 아니라 정치적 권위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²³⁾

그러므로 우리는 루터가 백성들을 향해 무차별한 제도적인 폭력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반란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인 폭력을 용인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루터는 말씀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성서가 담고 있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주의적 삶을 강조하는 동시에, 권세가 진자들에게 복종하라는(제도적 폭력을 용인하는) 요구 또한 강조하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지나치게 탈세속적이거나 혹은 세속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둘을 동시에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던 현실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III. 루터와 기독교 현실주의적 윤리

1. 현실주의적 윤리 - 리처드 니버의 중간에 위치한 윤리유형을 중심으로

루터는 세속정부와 영적 정부가 서로의 역할을 혼동하거나 침해하는 혼란의 시대에 살았다. 사실상 이러한 혼란은 교회와 정치의 역사 전체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리처드 니버는 이와 같은 긴장의 상황에서 기독교 윤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한다. 새로운 법 유형, 중간에 위치한 유형, 자연법 유형이 그것이다.

1.1 새로운 법 유형과 자연법 유형

21) 카질툼슨, 김주한 옮김, 마르틴루터의 정치사상, 민들레책방(2003), P.146

22) 손규태, 마르틴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대한기독교서회, 2004), p67 에 나온 루터 논문 평화를 위한 권면을 해석하였다.

23) 손규태, 마르틴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대한기독교서회, 2004), p72

새로운 법 유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가치관만이 타당하고, 이 윤리를 가진 공동체는 당연히 잘못된 윤리를 가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²⁴⁾ 이 유형은 현실에 대해 대립하거나 회피하는 성격을 가진다. 폭력에 기반 했던 팩스 로마나의 현실에 회의를 느끼고 나타난 절대평화주의(Absolute pacifism)가 좋은 예에 속한다.²⁵⁾

반면 자연법 유형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가치관과 규범을 자신의 문화가 지닌 이성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윤리의 뚜렷한 본보기는 근대 자유주의의 기독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법 유형과 자연법 유형은 어느 한쪽을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모습 내지는 다른 요소를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도피하도록 강요하거나, 복음을 입맛에 맞게 취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²⁶⁾

1.2 중간에 위치한 유형 = 현실주의 윤리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유형은 중간에 위치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현실주의 윤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리처드 니버는 중간의 위치한 유형을 (1)신적인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와 문화 안에서 혹은 영원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2)신적인 명령은 그리스도(성경, 교회)와 자연(이성, 문화)²⁷⁾의 두 가지 매체를 통해 온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쌍의 가치나 명령들을,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를 통해서 해석하거나 어느 한 쌍을 제거하여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서술하였다.

특별히 그는 중간에 위치한 유형 중 왕복 운동유형(이원론)에 라인홀드 니버,

24) 리처드 니버, 홍병룡 옮김,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 이하 CC, IVP(2007) P.56

25) 절대 평화주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박충구의 기독교 윤리사I 214P에 나와있다.

26) 루터 또한 "세속 권세 :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여야 하는가" 논문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진단하면서 대학의 궤변론자들은 복음을 입맛에 맞게 취해서 제후들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한다. [존 딜런버거 편저, 이형기 역, 루터 저작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2005) P.436]

27) 루터의 언어와 비교해본다면 그리스도 : 자연 = 영적 정부 : 세속정부

마르틴 루터 등 현실주의 윤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을 분류하면서 <표4>와 같이 현실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전제를 설명하였다.²⁸⁾

- 1) 복음의 윤리를 급진적 형태 그대로 수용하지 '자연적인 지성'에 타당하게 보이려고 재해석하지 않는다.
- 2) 자연과 문화의 요구사항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요구로 수용한다. 출산, 자기보존, 악한 세상에서의 질서유지, 불의한 자의 억압에 대항한 의로운 자의 의무적 생산 등은 모두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다. 이런 요구들로 부터 피할 길은 없다.
- 3) 복음의 가치관과 명령들이 문화의 가치관과 명령들로 번역 될 수 없는 것처럼, 후자도 전자로 번역 될 수 없다.
- 4) 영과 육으로서, 초월적 인격과 경험적 개인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요 사회 속에 있는 존재로서, 본질과 실존으로서 인간은 이중적 존재다.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자비, 세상에서의 검을 가진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은 이중적 신이다.²⁹⁾ 창조된 곳이자 타락한 곳 좋은 곳이자 부패한 곳으로서의 세상은 이중적인 장소이다.

<표 4> 리처드 니버의 왕복운동 유형의 특성

2. 루터에게서 나타나는 현실주의 윤리

우리가 앞서 살펴본바 알듯이 이와 같은 현실주의 윤리의 특성은 루터의 두

28) CC, P.66

29) 절대로 이것은 신성 모독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복음과 자연법사이에서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리처드 니버는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왕국설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나님 나라 안의 두 정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루터는 율법(도덕법과 사회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혼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규율(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법을 지키며 선행을 한다.(II-1 루터의 윤리사상의 전제 참고) 그러나 법만을 따르는 경우 선행의 동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타적 행동을 할 때마다 점수를 따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조차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 따라서 단순히 세상의 법만을 지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므로 세속권세가 영혼에 대한 법을 규정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정부를 침해하고 영혼들을 그릇 인도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세속권세 :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여야 하는가 중³⁰⁾

루터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법을 통해 세상을 보존하신다고 믿었다. 루터에게 있어서 복음은 죄악 되어 희망이 없는 현실을 깨달아 겁에 질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용서해 주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왕국으로 입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이 은총을 입은 결과로 이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자유로이 자기를 잊은 채 이웃을 섬기며 선행을 하게 된다.

복음은 사람의 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내면에 적용되는 것이다. 즉 사람의 외적인 행위를 직접 다스리지 않고 사람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인 일차적인 공동체를 건설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한 직업을 발견할 필요성과, 자존심을 획득하고 인간과 신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공동체를 건설할 내적 필요성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수도원이나 비밀 집회는 필요 없으며 절대평화주의가 나타날 이유 또한 없다. 모든 평범한 직업을 통해 세상에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

30) 존 딜런버거 편저, 이형기 옮김, 루터 저작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2005), P.457

루터는 우리가 문화, 곧 세속적 영역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화적 삶에서 따를 규율은 그리스도의 법이나 교회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³¹⁾ 모든 직업에 있어서, 혹은 모든 문화 활동에 있어서, 우리는 각 영역의 전문적 규율을 따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이 신종플루의 치료법을 알아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복음 곧 사랑의 계명으로부터 범죄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법을 알아낼 수 없다.

따라서 복음은 자연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법 또한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 두 영역은 이 세상 속에서 각각 다른 범주에 속해 있으나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이상에서 우리는 루터는 결론적으로 두 정부의 시민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은 외적 삶에 있어서는 군주에게, 내적 삶에 있어서는 양심을 가지고 신앙으로 그리스도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봄으로써, 현실에서 두 정부 간 나타나는 긴장을 회피의 구도나 대립의 구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루터는 두 정부 모두 하나님의 도구라는 상호 독립-교류적 맥락에서 당장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문제에 답을 제시했다.

이러한 루터의 이원적인 주장에서 우리는 어느 하나를 제거하거나, 한쪽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둘 다 필요한 모습을 강조했다. 인간의 삶에 밀착된 현실의 맥락에서 생각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IV. 내 이름은 마르틴 루터, 내 얘기 들어볼래?

우리는 루터의 윤리신학적인 의도들이 16세기라는 정황 아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루터는 지금의 국가(Staat)형태가 아닌 봉건적 세계관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루터의 윤리사상을 현대적인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과거의 사상을 현대에 적용하는 것은 자칫하면

31) CC, P.289

이데올로기가 되어 또 다른 모습의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정치 구조로 보았을 때 세속 정부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그의 신학적 이해는 비판받아야 한다.³²⁾ 오늘날 세계에서 루터 시대처럼 하나님이 제정하신 권력으로서 신분적으로, 혹은 지속적인 권력으로 옹호를 받을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오늘날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오늘날의 국민들은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며 탄핵을 요구 할 수 있다.

루터의 시대와 현대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마르틴 루터의 사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루터의 모습과 사상이 현대의 정치와 종교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1. 정치와 종교의 기준 : 인간의 인기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루터는 자신의 인기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따랐다. 그는 보름스에서 확립한 자신의 태도를 농민전쟁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했다."³³⁾ -한스 슈바르츠

루터는 정치와 종교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타인들의 인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서에 비추어 자신의 이성애 따라 주장하고 그대로 실천하였다. 이는 보름스국회에서의 루터의 발언이나, 농민혁명에 대한 그의 입장에서 잘 드러난다.

이것은 현대의 일부 정치가들이 자신의 사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대중들의 인기애 연연해서 결국은 대중들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어 가는 현상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루터의 이런 자세는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대중의 인기를 얻어 교세를 확장하고 경제적인 수입을 늘리는 가운데, 대중들을 진리와는 먼 길로 이끄는 일부 종교가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교회를 교회되게 :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32) 박충구, 기독교윤리사 I, 대한기독교서회(2008), P.220

33) Hans Schwarz, Martin Luther : Einführung in Leben und Werk, Quell Verlag (1995) P.141 본문 확인함.

루터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농민들과 제후들의 대립 정도로 이해한 농민전쟁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 성서의 관점, 예수의 복음에서 보고 판단하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농민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의 정신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을 무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종교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거짓과 욕심의 합리화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과 실천을 분리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세속화된 교회, 기복주의, 맘몬 숭배 등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한국교회를 복음과 배치되는 길로 이끄는 "물량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에 대한 비판이 아닐까?

루터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모든 존재와 사유가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되는, 이른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될 것이다.

3. 정치와 종교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루터는 로마 교황과 가톨릭교회가 세속 정부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보고 "목자인 체 하지만 늑대들" 이라고 이야기 했다. 동시에 루터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 했다. 루터는 정치와 종교의 영역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 구분을 넘어선 정치와 종교의 혼용이나 부당한 간섭, 야합, 정치의 종교 이용, 종교의 정치 이용 등을 철저히 반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정교유착이 일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의 교회와 정치의 모습을 비판 해 볼 수 있다. 서로가 서로의 영역으로 침투되고 서로를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과연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인지에 대한 질문의 견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먼저 성찰해야 할 것이다.

4. 정치와 종교의 목표 달성 수단 : 비폭력과 관용

루터는 어떤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남용되는 폭력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였고, 종교나 정치의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비텐베르크 혁명은 종교개혁이라는 목표가 난동과 같은 수단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루터는 이러한 소요에 철저히 반대하였다.(I-1.4 참고) 또한 루터는 농민들의 반란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음의 탈을 쓴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폭력으로 목표를 추구하고 외집단에 대해서 배타적인 반응을 보이는 극단적인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나가는 말

루터는 악에 대항하는 도구로서 영적 정부와 세속정부를 구분하여 이야기 했다. 동시에 이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서로 상호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현대와 과거 루터 시대의 사회 구조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루터의 두 왕국론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생략'해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루터 사상의 결과물을 그대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직접 루터의 눈으로 현대를 바라보며 현대의 정부와 교회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 나름대로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루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감리교 또한 그러한 재해석의 작업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유경동은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도 교회와 정부 사이의 연대성을 강조하며, 사회 공동체에서 정부와 교회가 모두 하나로서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하였다.³⁴⁾

웨슬리안인 우리는 악의 세력에 저항한다는 공통의 목표로 오늘날의 합리적인 정부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현실적으로 상호작용(소통)하며

제 역할을 건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언자적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이양호, **루터의 생애와 사상**, 대한기독교서회(2002)
 윌리스턴 워커 저, 민경배 외3명 역, **세계 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1998)
 종교교재편찬위원회 편, **성서와 기독교**,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조병하, **마르틴 루터와 개혁 사상의 발전**, 한들출판사(2003)
 라인하르트 슈바르츠 ,정병식역, **라인하르트 슈바르츠의 마틴루터**
 칼-하인츠 초어뮐렌, 정병식·홍지훈역,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J.M.Poter, 홍치모 역, **루터의 정치사상**, 콘콜디아사(1985)
 Martin Luther, **the Missuse of the Mass, Luther's Works, vol36**, Philadelphia fortress press(1959)
 이장식, **기독교와 국가**, 대한 기독교 출판사(1981)
 박충구, **기독교 윤리사**, 대한기독교서회(2008)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I**, 대한기독교서회 (1978)
 J. Moltman, 조성호 역, **정치신학 정치윤리**, 대한기독교서회(1992)
 마르틴 루터, 이길상 옮김, **탁상담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2005)
 손규태, **마르틴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대한기독교서회(2004)
 리처드 니버, 홍병룡 옮김,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 IVP(2007)
 존 딜렌버거 편저, 이형기 역, **루터 저작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2005)
 유경동, **기독교, 사회와 소통하기**, KMC(2007)
 카질투스, 김주한 옮김, **마르틴루터의 정치사상** 민들레책방(2003)
<참고 논문>
 장문강, **마르틴 루터의 政治思想-農民戰爭에 대한 實性を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1999)
 정상운, **M.Luther의 두 왕국론**, 성결대학교 논문집 제 24권(1995)
 윤응진, **루터의 두 왕국론**, 한신대학교 논문 제 10권
 김명환,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 통치의 두 영역의 관계 연구**, 감리교 신학대학교 석사논문(2007)
 김주한, **“마틴루터의 생애 연구”** (말씀과 교회 27호, 2001)

34) 유경동, 기독교 사회와 소통하기, KMC(2007), P.237